



프랑스 혁명전쟁 (1)

엘

소개글

프랑스 혁명전쟁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역시나 시험삼아 만들어봅니다.

목차

1	프랑스 혁명전쟁...1.1792년 4월	4
2	프랑스 혁명전쟁...2. 1792년 4월- 8월	7
3	프랑스 혁명전쟁...3.1792년 8월 - 9월 : 발미전투	12

프랑스 혁명전쟁...1.1792년 4월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정부는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국왕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국왕은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조카이자 신성로마제국의 프란츠2세(후에 오스트리아의 프란츠1세)였다. 그는 3월에 막 황위를 계승한 상태였다. 이렇게 시작된 프랑스 혁명전쟁은 이후 나폴레옹전쟁으로 이어져 무려 20여년간 지속되는 유럽의 국제전쟁이 된다.

이 전쟁이 시작된 배경은 혁명의 에너지를 국외로 돌리려는 프랑스 정치가의 주장과 이에 동조한 프랑스 국민들, 그리고 혁명이 프랑스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했던 유럽의 다른 군주국들의 생각이 맞물려서 시작된 것이었다.

프랑스의 정치가였던 당통은 프랑스의 국경에 대해서 자연경계-바다, 라인강, 알프스 산맥, 피레네산맥-이 경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연 경계야말로 프랑스 본연의 영토를 한정시켜주는 것이며, 외국이 차지한 이 자연 경계 안의 영토를 프랑스가 되찾는 것은 프랑스의 주권을 지키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프랑스의 전쟁은 영토확장이 목적이 아니라 프랑스의 주권을 지키는 행위로 생각했다.

반면 다른 군주국들은 프랑스의 혁명정신이 다른 유럽국가로 번져서 혁명을 연쇄적으로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전쟁도 불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가지 생각은 혁명전쟁이 오랜기간 지속되게 된 원인이 된다.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방어로 군대를 세개로 나누었고, 이 세방면에는 각각 뛰어난 장군들을 배치했다. 북쪽에는 로상보가 발랑시엔에 그의 사령부를 두고, 3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다. 로상보 휘하에는 다르빌, 비롱, 델벡, 다몽 등이 지휘관으로 있었다. 라파예트 후작은 중앙군을 지휘했으며, 사령부를 메츠에 두었고 20000명의 군사를 이끌었다. 그의 휘하에는 드 비트겐슈타인, 드 벨레몽트, 크릴롱 등이 있었다. 반면 50000명이 주둔한 라인방면에는 뤼크네르 원수가 지휘했는데 그는 외국인으로 란다우에서 스위스까지의 넓은 전선에서 지휘했고, 여기에 베르티에, 라메트 등이 휘하에 있었다.

프랑스의 첫번째 전투는 바로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저지 주들(Low Countries)에서 시작된다. 이곳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으로 계획은 뤼크네르에 장군이 계획했다. 하지만 각각 군의 사령관이었던 라파예트와 로상보와 뤼크네르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전투에 임했다.



라파예트와 로상보

테오발 딜롱장군은 4월 29일 10개의 기병대대를 통솔하여 릴에서 투르네를 향해 이동중이었다. 이때 그들은 d'Happeneourt 백작이 이끄는 오스트리아 군과 마주쳤다. 오스트리아 군의 출현에 프랑스군은 혼란에 빠졌다. 딜롱 장군은 병사들을 다시 모아서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전 군이 혼란해졌고, 병사들은 릴의 성문까지 도망쳤다. 테오발 딜롱 장군이 릴로 돌아왔을때, 그의 병사들은 장군을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살해했고, 릴의 시민들은 그의 시신을 모욕했다. 공병대의 베르토이 중령역시 같은 운명이었고, 다른 살아남은 장교들은 "귀족"이라 조롱당했다.

[테오발 딜롱 장군은 아일랜드 출신의 귀족 장군이었다. 그의 할아버지인 아서 딜롱은 제임스2세가 추방될때 프랑스로 왔으며, 그후 프랑스 군에서 복무했다. 아서 딜롱은 왕위요구자 제임스[올드프리트ender]와 루이15세에 의해서 백작 칭호를 받았다. 아서 딜롱의 아들과 손자들은 모두 프랑스의 장군이었는데 테오발 딜롱의 숙부인 아서 딜롱 주교는 성직자이자 군인으로 유명했다. 또 사촌이었던 아서 딜롱 역시 프랑스 장군이었다. 테오발 딜롱은 살해당한후 정부의 제대로된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그의 장례를 명예롭게 치렀으며, 가족에게 그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 시켰했다. 그리고 딜롱 장군과 같이 살해당했던 베르토이 중령 역시 마찬가지로 대접받았다.]

같은날 비롱 장군은 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몽스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에노의 Quievrain를 손쉽게 장악했다 그리고 계속 진격하여 몽스에 도착했다. 하지만 몽스는 오스트리아 군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한 상태였다. 비롱장군은 몽스를 공격하기전 딜롱 장군이 투르네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후 다섯시가 될 무렵 그의 우익은 오스트리아 군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이 공격은 성공적이어서, 비롱장군의 두개 기병연대는 오후10시경 장군의 명령없이 진지를 이탈해서 퇴각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비롱장군은 서둘러 퇴각을 막기 위해 홀로 기병연대를 따라갔다. 하지만 기병연대는 너무나 빨리 퇴각했기에 진지에서 거의 3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겨우 따라잡을수 있었다. 연대원들이 모두가 배신자가 되었다고 외치는것을 들으면서 비롱장군은 병사들을 설득했다. 사오십명을 제외하고 병사들은 장군의 설득에 따라 다시 진지로 돌아갔다. 진지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들은 곧장 총사령관인 로상보가 있는 발랑시엔으로 가서 오스트리아 군에 설득당한 비롱 장군이 군대 전체를 데리고 배신했다고 고발했다. 발롱장군은 다음날인 4월 30일 딜롱 장군의 패배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철수를 명했다. 비롱장군은 Quievrain을 계속 점령하기 위해 부대를 나누어 그곳에 주둔시키켰다. 하지만 비롱의 부대가 떠나자마자 Quievrain은 다시 에노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비롱은 적에 대항하는 모든 시도를 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보충병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에 Quievrain을 포기해야만했다. 그는 진지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최대한 발랑시엔가까이 갔다. 프랑스 군은 수많은 병사를 적의 칼끝 뿐만 아

세번째 공격은 Carl 후작의 지휘아래 만사천명의 보병과 250마리의 말이 동원되었다. 후작은 피르네로 진격했으며, 플레미시를 점령했지만 이 도시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도시의 시장이 프랑스군에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작전의 실패로 인해서 후작은 뉝케르크로 후퇴할수 밖에 없었다.

자료출처

2.위키피디아 : French Revolutionary war http://en.wikipedia.org/wiki/French_Revolutionary

프랑스 혁명전쟁...2. 1792년 4월 - 8월

중앙군을 지휘하던 라파예트 후작은 4월 30일 지베에 있었다. 나르본의 지휘아래 78개의 캐논포를 가진 부대를 이동시켰다. 그는 오일만에 56 리그(56X3=168마일)을 이동시켰다. 그리고 라파예트는 나머지 부대와 이동했고 약속한 날짜에 도착했다. 라파예트는 자신의 배속지를 굳게 지켜냈지만, 딜롱의 실패와 비롱의 퇴각은 수비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수비에 치중하던 오스트리아 군은 5월 17일에 공격을 나섰다. 바바이(Bavai,브랑시엔의 남쪽)을 공격했고, 수비대를 포로로 잡았다. 이 사실을 접한 프랑스군은 무슈 노와이유에게 기병을 선봉으로 보냈다. 여기에 뤼크네르 장군 본인도 함께 갔다. 로상보 원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병부대를 데리고 따라갔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전, 주된 목적을 달성한 오스트리아군은 이미 물러났다.

라파예트의 군대는 지베에서 부빈까지 넓게 퍼져있었다. 무슈 구비엥의 지휘아래서 적을 쫓고 있던 그의 선발대는 5월 23일 플랑드르근처에서 오스트리아 군에 공격당했고, 20개의 막사와 3개의 대포 그리고 1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내고서 후퇴했다. 6월 11일에는 Maubege근처에서 또다른 공격이 있었다. 구비엥은 적의 의도를 간파하자마자,그의 야영 장비를 거둬들인후 신속하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구비엥의 위협을 간파한 라파예트는 나르본에게 주력 구원병을 주었다. 그는 오스트리아 군의 측면을 기습했다.한편 라파예트 자신은 적의 주력군과 싸우고 있었다. 프랑스군은 사상자를 버려두고 후퇴하는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이 기습으로 가장 뛰어난 장군중 하나로 칭송받았던 구비엥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휘하 군대는 자신들의 위치를 지킬수 있었다.



1792년 라파예트

6월에 네덜란드에서 프랑스군은 진전이 좀 있었다. 프랑스는 Courtenay, 이제르, Menin과 잃었던 다른 요충지들을 얻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군이 압도적인 공세로 이곳을 탈환했고, 프랑스군은 발랑시엔과 지베로 후퇴해야만 했다. 이런 전투들이 벌어지는 동안, 프랑스의 관료들은 북부군 총 사령관이었던 로상보와 전쟁장관이었던 무슈 드 그라브의 사임으로 끝나는 정치 투쟁으로 정신이 없었다. 로상보의 후임은 뤼케르네가 되었고, 전쟁장관으로는 세르방이 되었다.

파리 주변의 2만명을 징집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과 혁명을 반대하는 신부들을 체포하는 법률을 승인하라는 압력에 루이16세는 이를 거부했고, 당시 집권당 총수였던 롤랑은 국왕에게 "막말"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루이16세는 내각의 모든 장관들을 해임했다. 이에 6월 20일 생 안토니오의 교외에서 폭동이 시작되었다. 군중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각료를 구성한 것에 항의했으며, 몇몇 법률을 바꿔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루이 16세와 그 가족들이 있는 궁을 향해, 죽창과 대포를 앞세우고 갔다. 이들이 행진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동참했고, 루이16세와 그 가족앞으로 갔다. 하지만 국왕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군중들의 위협은 다행히 위협으로만 그쳤다.



루이 16세

4월 29일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공주인 마리아 크리스티나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왕자이자 오스트리아령 저지주들의 총독인 인 알베르트 카시미에르2세의 이름으로 프랑스에 대해서 선전포고가 발표되었다. 7월 5일에는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국왕이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프란츠2세의 이름으로 프랑스에 대한 선전포고가 발표되었고, 같은달 26일에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2세가 프랑스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이것은 유럽 군주들의 동맹으로, 유럽의 정예병력 8만명이 프리드리히 대왕 휘하에서 뛰어난 군인이므로 이름을 날린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의 지휘아래 프랑스로 진격한다는것을 의미했다. 코블렌츠에 공작은 그의 첫번째 사단과 함께 왔다. 그는 이곳에서 네개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주요 요지는 프랑스의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요지였다. 하지만 이 성명서는 도리어 프랑스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 루이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공포정치시대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8월4일 이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오스트리아 국왕의 이름으로 긴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여기에 프로이센 국왕의 서명이 들어간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을 비난했고, 혁명의 영향력을 끄집해했으며 혁명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8월 8일에는 프랑스의 왕족들 역시 이에 동참했다.



브라운슈바이크-볼펜뷔텔의 카를2세
오스트리아 군 총 사령관

이 동맹의 중심인물은 독일 연방의 수장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2세였다. 다른 군주들이 대리인을 보냈던 반면 그는 자신이 정복했던 코블렌츠로 직접왔다. 그는 그 자신이 전장에서 늘 선두에 섰던 프로이센군 오만명을 이끌고 왔다. 호엔로에 공과 클레르파이트 백작 휘하의 삼만명의 오스트리아 군 역시 도착했다. 헤센의 란트그라프는 육천명을 제공했다. 그리고 프랑스 귀족과 그 를 따르는 왕당파 22000명이 "Royal army"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었고 이들을 위협하던 사람은 프로방스 백작, 아르투아 백작 (루이16세의 동생들), 공데 공, 부르봉 공작 이었다.병력은 십만 팔천명에 이르렀고,많은 군주와 왕공들 과 귀족들이 승리를 장담했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 총 사령관이 된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롱비로 진격했다 비엔나 궁정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알자스 지방쪽의 공격을 진행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로 진격시켜서 틈을 포위하게 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2세 빌헬름

이렇게 프랑스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자료출처

앞쪽과 동일

그림출처

위키 미디어 커먼스

프랑스 혁명전쟁...3.1792년 8월-9월 : 발미전투

이렇게 코블렌츠에 동맹군이 속속들이 모여들게되자 프랑스는 위기감을 느꼈다. 프랑스 혁명을 방해하려는 외국 세력의 침략은 국왕에 대한 불만으로 번져갔다. 특히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의 네개의 선언문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프로이센국왕의 선전포고에 국왕부부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동맹군의 프랑스 침공이 다가오자, 국왕에 대한 불만이 커져간다. 8월 10일 성난 군중들은 루이16세가 머물고 있던 툴리리 궁전으로 몰려갔다. 국왕을 지키고 있던 부대들은 국왕이 개인적으로 고용했던 스위스 용병대와 국왕에 충성하던 의용군과 귀족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성난 군중들을 감당할수 없었다 이를테면, 700명으로 구성되어있던 스위스 용병들 같은 경우 살아남은 숫자가 200명도 안되었다. 다른 부대들 역시 사상자가 많이 났다. 루이16세는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구할수 있었다. 외국세력의 압박은 수도 파리를 잃을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이런 우려가 국내외의 적을 처단하자는 이름하에 '공포정치'를 용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공포정치는 다음해까지 지속되었으며, 국왕부부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공화국의 적'이라는 이름하에 길로틴에서 처형당하게 된다.



1792년 8월 10일 툴리리궁

이 와중에 라파예트 후작은 군의 실권을 장악했었지만, 왕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했기에, 결국 오스트리아로 도피해야만했다. 그가 도망간후 8월 19일 의회는 그를 반역자로 명시했다. 라파예트가 오스트리아로 도피한 직후인 8월 16일 뒤무리에가 북부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리고 27일에는 클레르만이 중앙군 사령관이 되었다. 이 두 부대는 기존의 정규군에 의용군들이 뒤섞인 형태였다. [..하지만 다음해에 뒤무리에도 도망갔다는... 더 중요한것은 이렇게 도망가서 무사한 인물들이 있었던 반면, 남아있다가 죽은 이들도 있는데, 주로 공포정치기에 장군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몰아댁니다. 하지만 뒤무리에가 도망간것은 진짜 충격이었던지 베르나도트 역시 뒤무리에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 이때는 아직 대위도 못됐을때입니다.-]

이런 프랑스 상황은 코블렌츠에 있던 동맹군에게도 알려졌다. 오스트리아군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지만, 프로이센군은 이미 국왕과 함께 도착해있었다. 프리드리히2세 빌헬름과 그의 아들은 이것이 프로이센이 독일의 패권을 쥐게될 좋은 기회로 여겼다. 어쨌든 동맹군은 수도의 혼란한 상황과 루이16세의 위험한 상황이 프랑스를 침략하기에 적기라고 여겼다. 8월 19일 동맹군은 프랑스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동맹군의 목표는 벨기에를 통해서 파리로 입성하여 루이16세와 그 가족을 구하는것이였다.



라파예트 후작

8월 20일 왈롱 출신의 오스트리아장군인 클레페(Clerfayt)장군 룽비까지 진군했다. 그는 육만명의 병사를 이끌고 삼천오백명이 지키고 있던 요새인 룽비를 공격했다. 이틀동안의 격렬한 포격전이후, 클레페 장군은 부하와 함께 요새로 진격했고 겨우 열다섯시간인 8월 23일에 룽비를 점령했다. 룽비는 점령하기 어려운곳이었지만, 이틀간의 포격당 이후요새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으며, 특히 수비대의 기강이 해이했기에 그들은 저항을 곧 포기하고 말았다.

룽비를 함락시킨후, 동맹군은 다시 국경 요새중 하나인 베르딩으로 이동한다. 이당시 베르딩은 포위 공격에 대한 방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

다. 하지만 이곳을 책임지던 니콜라 조제프 보르페르 대령은 그가 할수 있는한 모든 방비를 했다. 8월 29일경부터 포위가 시작되었다. 포위공격이 소용이 없자, 8월 31일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직접 베르덩으로 갔고, 이후 짧은 포격전 이 진행된후 9월 2일 베르덩은 함락당했다. 베르덩의 사령관인 보르페르 대령은 투표로 반역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는 결국 명예를 위해 권총으로 자살했거나 또는 전쟁위원회가 그를 살해했으리라 추측된다.

베르덩을 공격하던동시에 오스트리아군은 뒤무리에의 선봉대와 가벼운 접전후 스테니를 장악했으며, 이를 통해 주력군이 모조 가까운곳으로 갈수 있게 된다.

클레페 백작

뒤무리에는 이곳 프랑스 군 병력이 겨우 23000명밖에 되지 않는것을 알았고, 이 마저 각 지에서 자발적으로 온 의용군이였다. 반면 적은 팔만명의 정예부대로 기병 수만해도 뒤무리에의 네배가 되었으며, 이들은 강력한 군주와 전장에서 백발이 성성해진 장군들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전쟁위원회 역시 뒤무리에의 의견에 동의했다. 뒤무리에는 룽비와 베르덩을 점령한 오스트리아군이 티옹빌과 메츠를 점령하려 한다면, 네크네르 장군과의 연결이 끊어질것을 우려했고, 갈보 장군에게 프로이센군을 막고 베르덩을 구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뒤무리에는 실패를 이미 예견했기에 이것은 단지 며칠간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었다. 갈보 장군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서 며칠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그 자신은 14일 이상 지원군없이 고립되어서 버텨야했다.



뒤무리에

여기까지 왔던 동맹군은 의견이 나뉘진다.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천천히 파리로 진격하자고 주장했던 반면, 프리드리히2세 빌헬름은 한시바빠 파리로 가자고 주장한다. 특히 루이 16세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기에 빠른 진군을 주장하는쪽이 설득을 얻었다.

뒤무리에는 동맹군이 세당에 이르기 전에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했으며,그의 휘하 여러 장군들은 마른강 뒤편에서 적을 방어하는것이 좋다고 여겼으나, 뒤무리에는 아라곤느 숲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라곤느 숲을 가리키면서 "이곳을 지켜야하오 이곳은 프랑스의 테르모필레가 될것ियो. 내가 운이 좋아 프로이센군보다 이곳에 먼저 당도한다면, 모두를 구할수도 있소"라고 말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한것으로 만약 이곳을 통해 프랑스 전선의 북쪽끝인 Croix-aux-Bois로 동맹군이 지나가려한다면, 이곳을 장악하는것이 동맹군을 막을수 있는 중요한곳이라는 생각이었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영화"300"으로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전투입니다. 그리스를 침략한 페르시아에 스파르타군이 페르모필레의 좁을 길목을 막고 버티다가 모두 사망한 전투입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쭈욱 그리스를 장악해갔고, 그리스는 아테네의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야 승기를 다시 잡을수 있었습니다.-아마 뒤무리에는 스파르타군이랑 기본적으로 같은 전략이다..라는 의미였겠쥬.^*]

뒤무리에는 결전이 일어날 지역에서 기다렸고, 나라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자원병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각지에서 왔었지만, 곧 나라를 지키려는 열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결정적 전투가 일어나기전 모두 제시간에 맞춰서 올수 있었다.

베르덩을 점령한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뫼즈강을 건넌고, 클레페 장군이 그의 우익을 지휘했으며, 호엔로에 공이 그의 좌익을 지휘했다. 뒤무르에는 병력 대부분을 이곳에 집중했으며, 보다 덜 중요한 지역인 Chêne-Populeux 와 Coix-au-Boisposts 에는 소수의 병력만

배치했다. 결국 이곳은 프로이센군에 금방 장악되었다. 이런 패배에도 뒤무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책략이 성공하길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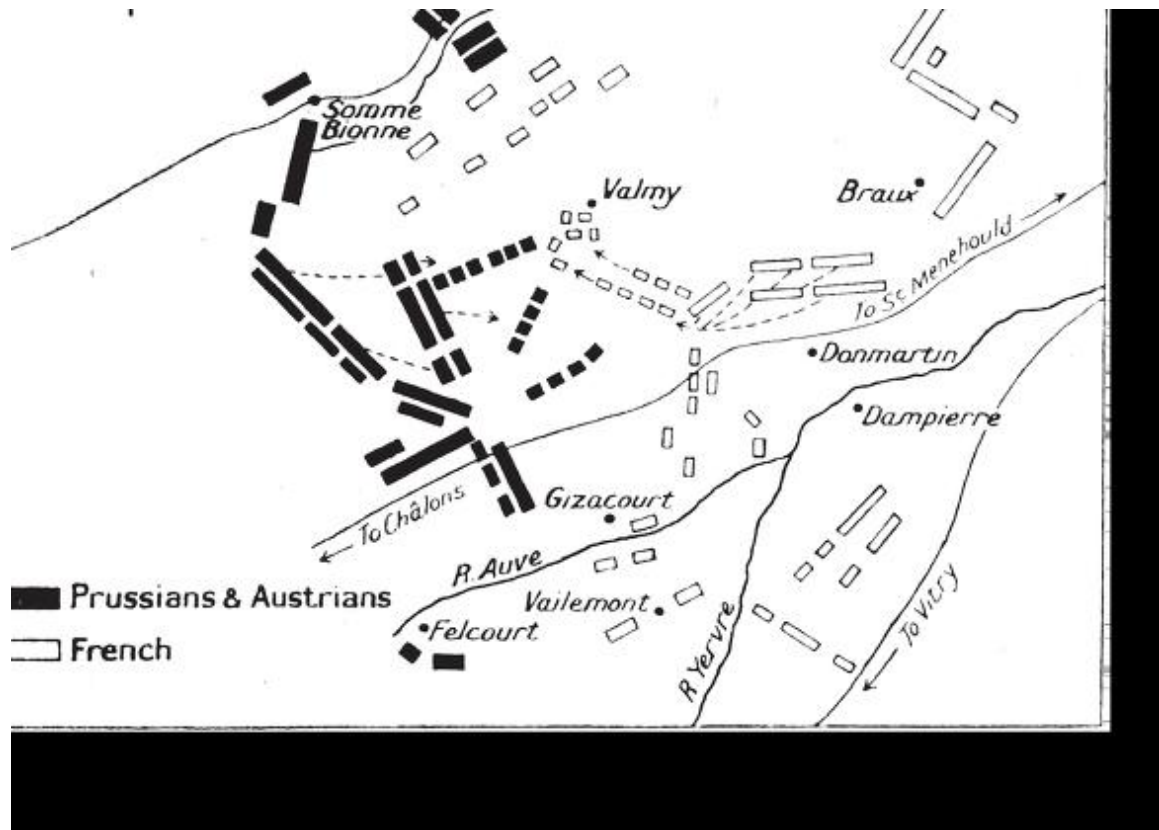
9월 14일 뒤무리에는 자신의 부대를 철수시켰고, 엔을 거쳐서 아라곤느로 갔고, Sainte-Menehould 에서 부대를 다시 규합했다. 그는 아라곤느에서 프로이센을 저지할 생각이었고, 9월 19일 켈레르만이 도착할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켈레르만
후에 발미 공작

프로이센군은 뒤무리에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퇴각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1792년 9월 20일 발미에서 프랑스 군을 공격한다. 프랑스군은 두부분으로 나뉘어있었는데 켈레르만의 병력은 삼육천명으로 발미 서쪽에 있는 풍차가 있는 고지를 점령하고 앞쪽에 포진해 있었다. 그리고 뒤무리에는 만팔천명의 병력으로 마을 동쪽에서 후미를 구성하고 있었다. 양쪽에서 포격이 시작되었고 이후 프로이센군의 선두열은 발미의 고지를 향했고, 켈레르만 역시 자신의 보병대에 전투열을 맞추었다. 둘 부대는 서로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고, 충분히 가까워왔을때, 총검으로 싸울준비를 했다. 켈레르만은 앞쪽에서 기다렸으며 돌격하기 직전 "프랑스 만세 vive la nation'을 외쳤고, 이 함성은 모든 프랑스 군에게 전해졌고,프랑스군은 프로이센군을 향해 돌격했다. 유명한 프로이센군은 이 한번의 공격에 흠어졌으며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혼란에 빠진 부대를 데리고 후퇴할수 밖에 없었다. 프로이센군은 다시 공격해왔다. 두번째 공격에서 프로이센군은 프랑스 보급마차를 공격하는데 성공했고 큰 폭발을 일으켰다. 하지만프로이센군은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돌격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사상자가 나왔다. 결국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군을 이끌고 철수하는수 밖에 없었다. 발미 전투는 피비린내나는 격전은 아니었다. 사상자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프로이센측이 164명 프랑스 측은 약 300명 정도였다.



발미 전투의 배치도

이후 약 10일간 양측은 발미에서 대치했다. 이 전투 직후 뒤무리에는 프로이센을 동맹군에서 떼어놓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공화국이 되었고, 프리드리히2세 빌헬름은 군주제의 복귀를 가장 우선목적으로 했고 프랑스 역시 프로이센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했기에 협상은 무산된다. 협상이 무산된 직후인 9월 30일 밤과 10월 1일 초 동맹군은 프랑스 영토 밖으로 퇴각했다.

이 전쟁은 프랑스 혁명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전투였다. 프랑스 혁명이후 치른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전쟁은 사상자가 아니라 결과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사상자만 따지면 프랑스측이 더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11월에 벌어지는 즈마프 전투와 함께 프랑스가 확고한 공화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프랑스가 라인지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발판이 된다.



발미전투

그림출처

1. 위키미디어 커먼스

2. Historical mas for Students and Teachers (<http://etc.usf.edu/maps/index.htm>)

자료출처

1. History of the wars of the French Revolution : FROM THE BREAKING OUT OF THE WAR IN 1792, TO THE RESTORATION OF A GENERAL PEACE IN 1815 (E. Baines 1817)

2.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from 1789 to 1814 by F. A. M. Mignet

3. <http://www.historyofwar.org/>

4. 위키피디어

4. Bernadotte : the first phase 1763-1799

프랑스 혁명전쟁 (1)

블로그

엘의 주절주절

<http://blog.daum.net/elara1020>

저자

엘

발행일

2011.01.28 05:24:26

 블로그